



국토교통부
행정안전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2. 12. 1.(목)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4016)
	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4018)
	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	책임자	과 장	허익배 (044-205-6330)
	산업교통재난대응과	담당자	수석전문관	정성은 (044-205-6337)
보도일시	2022년 12월 1일(목) 16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국토교통부 · 행정안전부 장관, 시멘트 화주업체 방문 - 업무개시명령 3일차, 시멘트 유통기지 찾아 지속적인 운송 요청 당부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,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.
- 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“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산 후 빨리 타설해야 하는 시멘트산업 특수성에 따라 현재 운송 차질에 직격탄을 맞은 현 상황에서,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가 필수적”이라고 하였다.
 - 이어 “업무개시명령에 따라 BCT 운송횟수와 시멘트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하면서, “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거부 중인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에게 문자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, 차질없이 계속 송달하여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이 장관은 “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수송력 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, 현장 관계자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, “노동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안된다.”, “법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.”는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였다.
- 두 장관 발언에 이어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“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늘고 있어 생산량도 점차 늘릴 계획”이라고 하며, 시멘트 운송이 완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끝으로, 두 장관은 시멘트 유통기지 주변에서 정상 운행차량 보호를 위해 긴급 투입된 경찰관들을 격려하면서 “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